

現代重, 해외 기술 수출 '재미'

- 36kV GIS 기술, 말레이시아에 이전
- 부품 공급으로 매출 7백만 달러 예상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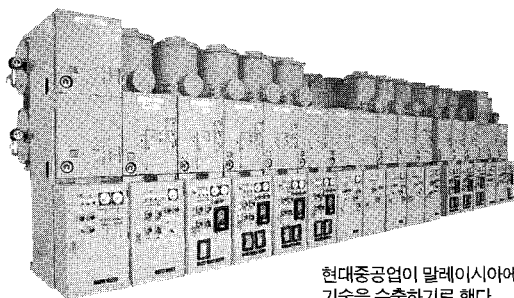
현대중공업은 최근 말레이시아의 배전반 전문업체인 암스톤(Ampston)사와 36kV급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향후 5년간의 기술 이전에 따른 계약금과 로열티 등 43만 달러의 수익 외에 차단부와 구동장치 등 핵심부품을 독점 공급하기로 되어 있어 약 7백만 달러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로의 제품 수출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수출한 기술은 이미 현대중공업 내에서는 구형 기술인 탱크(Tank) 타입 GIS로 기술 유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피해는 전혀 없으며, 현대중공업은 현재 큐비클(Cubicle) 타입의 신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해에도 같은 기술을 대만에 수출했으며,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와 중저압차단기, 배전반, 고압차단기 등 총 5종의 전기전자 관련 기술을 인도, 이란 등에 수출해 약 2백만 달러의 기술료를 받은 바 있다.

기술 수출은 높은 관세와 현지 업체의 국산화 등에 따라 시장 진입이 어려운 국가에 제품 제작 없이 기술만 이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관련 부품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기술 수출국 주변으로 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현대중공업이 말레이시아에 GIS 제작 기술을 수출하기로 했다

자사의 높은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은 향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 수출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첨단 모터제어반 출시

- 콤팩트형 고기능 · 기존제품보다 효율 7배 우수
- 국내외 대형 석유회사 호평... 시장서 인기몰이 자신

현대중공업은 콤팩트형 고성능 모터제어반 「하이엠씨씨(HIMCC)」를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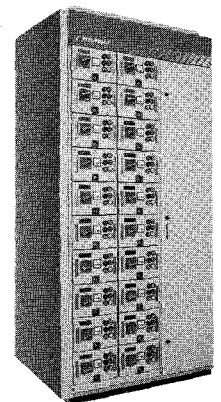
이 제품은 일반 모터제어반(MCC)보다 성능과 안전성이 뛰어나면서도 설치 길이가 절반에 불과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공간 활용도도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제품이 415kV 직입기동 15kW 모터기동기를 6개까지 수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 개발한 MCC는 3배가 넘는 20개까지 가능해, 크기 대비 효율면에서 7배 이상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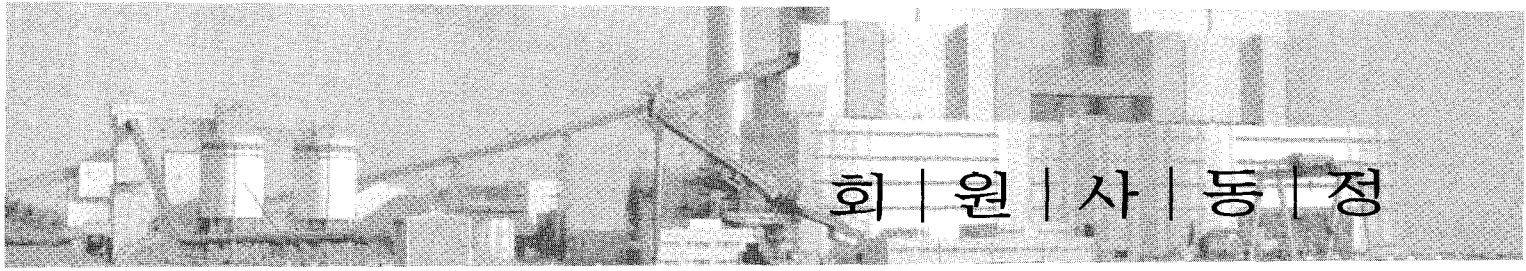
또한 단락시험을 포함한 엄격한 개발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각 유닛별 격실 구조로 설계돼 사고 파급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이 외에도 현대중공업 측은 단차부분이 분리되어 작업이 용이하고, 선로를 차단하지 않고도 성능 점검이 가능하며, 모터제어설비 하단에 롤러를 설치해 인출입 작업이 한결 편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1, 2차 전기선로와 3차 제어선로 접속을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2개의 유닛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중적재 유닛 접속 분배장치'와 무정전 테스트 기능의 핵심 장치인 '3위치 장치(3 Position Device)'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상태다. 이 제품을 모터제어반 분야의 주



현대 첨단 모터제어반 HIMCC



회 | 원 | 사 | 동 | 정

력 제품으로 선정하고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미 국내·외 대형 석유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HIMCC는 성능, 안전성, 편리성 등 모든 면이 기존 제품보다 탁월해 모터제어반 시장에서 최고 인기 제품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실제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사양이 반영되도록 설계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
- CP교육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두산은 기업 스스로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두산, 두산중공업(주), 두산산업개발(주), 두산메카텍(주), HSD엔진(주), (주)오리콤, 삼화왕관(주) 등 주요 7개사는 이날 각사별 이사회에서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언문을 낭독했다.

두산 박용우 회장은 선언문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사윤리강령 실천과 공정거래관련법 자율준수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의 업무와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이자”고 말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희 부사장은 “CP 도입은 법 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 대내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사별로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편람 및 문서 관리 규정을 제작하기로 했다. 또한 사내정보망을 개설하고 교육프로그

램 개발은 물론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고제도 및 제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두산은 CP교육을 신입사원 기초교육과 윤리경영 필수교육과정으로 편성시키고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두산은 2002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래로 사외이사를 전문경영인이나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했으며 올 초에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와 투명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영월화력건설소, 사랑의 헌혈행사 참여

7월 '南電 사회봉사단(가칭)발족' 을 앞두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계획

韓國南部發電(株)(약칭 南電) 영월화력건설소는 지난 6월 11일 회사의 기업이념인 '사회공헌' 을 실천하고 '세계 헌혈자의 날' 제정일을 기념하여 영월화력건설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고 영월보건소와 영월군이 주최하는 이번 사랑의 헌혈행사는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생명의 선물-헌혈, 당신께 감사드립니다.(Blood, a gift for life. Thanks.)'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지역민과 함께 해온 한국남부발전 영월화력은 헌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헌혈인구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강석명 영월화력건설소장을 비롯한 헌혈 참석자들은 '헌혈로 본인의 건강을 점검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고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7월 '南電 사회봉사단(가칭)' 창단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 직원 및 직원가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동서발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에너지사업 관련 상호협력협정 체결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24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 회의실에서 있었던 에너지사업 관련 상호협력협정 체결식에는 한국동서발전(주)의 이용오 사장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기우 이사장이 양사를 대표해서 각각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에너지사업 관련 상호협력협정은 양사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은 물론 사업의 연계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통해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구축하고자 추진 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지분참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문 요청을 한국동서발전에 했었을 당시 한국동서발전이 기술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사의 신뢰가 쌓인 것이 이번 상호협력협정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당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술자문을 필요로 했다”며 “동서발전으로서도 회사 내부역량과 발전소 운영경험에 대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에너지사업 관련 상호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사 간에는 경영정보와 기술, 노하우 등의 상호교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양사는 향후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와 국·내외 자료 조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금 활용을 통해 사업의 공동

추진을 모색하는 한편, 에너지사업의 상호협력자로서 공동 추진사업과 상대방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업무 전반에 걸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에 대한 공제제도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를 직접 수용가에 판매하는 국내 최초 집단에너지 사업인 설비용량 100MW급 부산정관 집단에너지 사업에 투자자로서도 참여하고 있다.

중부발전, 新 전력수급종합시스템 구축 완료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결정적 기여

한국중부발전은 6월18일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량을 연?월간 주기로 예측할 수 있는 전력수급종합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5개 발전회사 및 관련인사들을 초청하여 발표회를 가졌다.

한국중부발전(주)은 현재 운영중인 전력시장 및 전력수급환경을 반영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한전KDN(주)와 전력수급종합시스템 보완?개발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및 실행 알고리즘을 대폭 개선하여 전력생산량 계획수립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자료의 검증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수요변화에 따른 전력생산량과 연료사용량을 연?월간단위로 시뮬레이션화하여 정확한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한국중부발전(주)은 본 시스템에 대한 산업재산권(특허)을 출원 중이며 타 발전회사와의 공유를 통해 국내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부발전 평택발전처, 탈황설비 건설 수전행사 가져

서부발전 평택발전처는 6월 22일 한정국 사업본부장과 처내 직원 및 건설관계자(현대건설(주), 한국전력기술(주), 대우엔지니어링(주), 수양전설(주))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황설비 건설 수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수전계통 설명, 기념테이프 절단, 차단기 투입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한정국 사업본부장은 기념사에서

탈황설비 수전이 있기까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직원 및 건설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시공 및 시운전 공정시에도 현장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탈황설비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평택 탈황설비설치공사는 선행사업 공사기간 대비 3개월 단축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번 탈황설비 수전이 계획보다 20일 조기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공기압축기 등 단위기기의 본격적인 시운전 공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